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	단 '미추홀의	의 기계	계산단'기록		
구술자명	이승우	면담자		০]	혜숙	
면담장소	대금지오웰 사장실	면담지원		김	용경	
면담 일시	2023년 9월 14일	회차	1	시간	1시간53분13초	
자료번호	문화원어	서 작성하는	: 칸입니	l다.	·	
구술 개요	2대 사장으로 취임 후 대금지오웰과 향과 주변 협력업체와 함께 더욱 발 기업으로서 성장하기를 두려워하지 직원들이 독립하여 협력업체로서 함	전하는, 미리 않는 기계신	배 기술 야 난단의 2	게 앞장서려 하는 인천 친화적인		
주요 색인어	원, 인천 기계 산단, 부친. 회사,	기후 위기, 키스, 지역사	부품, 건설현장, 세륜기, 베어링, 슬라이딩, 직위기, 탄소 감축, 하청기업, 유대관계, 기업지역사회, 상생, 불우이웃돕기, 후원회, 이사, 비젼			
	구술 상세목록 내 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일시 및 연 - 구술자와 면				00:00:00~ 00:02:47		
- 시작은 가정 - 상호는 '인천 - 74년도 송류 재 위치로 여 - 이전을 하면 3. 회사의 주택 - 원래 가정용 에 들어서 선 - 80년대 들어 - 90년대 초 산먼지 발생 행되고 의무	전께서 신흥동에서 직원 1명을 데리고용 미싱 부품 제조로 시작함. 선정밀사'로 시작함. 선정밀사'로 시작함. 선정밀사'로 시작함. 선조등학교 후문이 있는 쪽으로 확장 이전을 함. 서 '대금공업사'로 상호를 바꿈. 선상품 변화 - 제봉기 부품으로 출발했지만 80년 산업용 제봉기 부품 쪽으로 개발을 함 산업용 제봉기 부품 쪽으로 개발을 함 서윤기 개발을 함. 주택건설 200만호 선제 대책을 세울 때였음. 장치를 화 돼서 3개월 만에 판매가 개시됐음 의 주력 사업임.	이전을 했다 대 오일쇼크 부품을 가공학 가 시작되면 설치하는 법	이후 함. 서 비 이 시	00:02:48~ 00:07:31 00:07:32~ 00:12:27	 ▷ 질문지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녹취문 	
		디 기ᅰ이		00:12:28~ 00:17:54		
- 안국반의 특	수성으로 외국보다 국내가 더 활성화	된 사례임.		00.17.54		



- 시장마다 상황이나 현장 여건, 자연환경, 제도 등 다 다르기 때문 에 우리나라처럼 적용되는 경우가 드뭄.	
5. 제품의 발전과 미래계획	
- 음성에 있는 공장에서는 세륜기를 생산·정비·임대 관리, 인천본 사에서는 건설 장비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생산·납품·수출하고 있음.	
 세륜기는 연구소에서 개발함. 설계 기술이 발전하면서 구조가 경량화 되어있음. 또한, 에너지 절감형으로 제작되어 출하됨. 고객들의 니즈를 발굴해 기술력으로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기계와 부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임. 그런 동기로 연구소를 설립했음. 	00:17:55~
- 해마다 국제 전시회를 참가하고 있음. 홍보뿐만 아니라 해외 정보를 획득, 경쟁사의 동향 파악하고자 함 건설 현장 발생하는 폐수를 필터링해서 정화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향후 목표임.	00:24:43
 또한, 폐수·오탁수 처리 장치를 현장마다 옮겨다니면서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마지막으로, 베어링 기능을 높여 세계적인 건설 장비 회사에 채택이 될 수 있는 베어링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임. 	
6. 사명 변경사유	
- 50주년을 맞이해서 '인천정밀사'에서 '대금지오웰'로 이름을 바꿈. - '대금'은 특별한 뜻이 없고, '지오웰'은 지오그래피(geagraphy)+웰빙(well-bing)을 따서 만든 이름임.	00:24:43~ 00:31:50
7. 세륜기의 사용 목적	
- 생산하는 제품에 자원이 덜 투입되고 경량화하는 것, 에너지 절약 형의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탄소 저감 감축에 일조하는 전략이라 고 생각함.	00:31:51~ 00:34:59
8. 기업들과의 관계	
 산단 규모가 크지 않고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대감이 좋았음. 회사 퇴직을 하고 창업하신 분들의 아이템을 위탁 생산하거나 인큐베이팅해서 일조를 하게 도와드리고 협력업체로 거래할 수 있게 끔하고 있음. 회사 출신이 아니라도 100개의 회사와 정기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음. 우리 브랜드로 우리 제품을 생산하면 시장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 대응이 가능함. 	00:35:00~ 00:48:28



 거래 고객사에서 도면을 주면 가격 경쟁을 통한 수주보다는 우리의 장점과 기능 등 데이터를 제공하고 제안을 드리는 판매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초기에 입주했던 기업 중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만 남음. 확장을 해서 이사를 가거나 폐업을 하거나 업체들이 많이 바뀌었음. 	
9. 부친과의 관계와 직원들과의 관계	
 부친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항상 조용하셨음. 휴일날 나와서 직원들이 특근을 하고 있을 때 현장을 오시곤 했음. 불러서 고생했다고 돈을 쥐어주고 가셨다고 함. 회사를 작은 규모에서 지금까지 이끌고 왔지만, 그 배경에는 부친의 직원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듬. 	00:48:29~ 00:52:40
10. 직원에 대하여	
 그만두는 직원보다는 오는 사람이 없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함. 음성 공장에는 3분의 1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임. 제조업을 하려면 외국인 고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워라벨, 주변 인프라 등의 격차가 큼. 	00:52:41~ 00:58:59
11. 회사만의 특별한 점	
 채용도 중요하지만 교육, 육성을 통해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다시 재개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꿈임.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 오는 직원들은 배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그래서 회사를 통해 평소 누리지 못했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꿈임. 	00:59:09~ 01:03:11
12. 회사의 발전	
 부친 때는 미싱 부품을 중심으로, 그 뒤로 전공을 살려 산업기계 분야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해 주력 사업이 되었음. 60년대에는 혼수품이 미싱이었음. 그때 호황기를 맞이했으며 70년 대 들어서면서 산업용 미싱이 국산화하면서 산업용 미싱 부품으로 전환을 거치게 되었음. 자동차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79년도에 입사함. 공장을 확장 이전할 계획이 있음. 직원 수는 꾸준히 늘었음. 120명까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01:03:12~ 01:15:26
13. 기부에 관하여	01:15:27~
- 기업의 운영이 개인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도	01:19:53



	I
생각해야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것도 생각해야되겠다고 함.	
14. 가족같은 회사	01:19:54~
- 가족같은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함.	01:19:54~
15. 산단 내 모임	
 이사회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산단 내에서 유대를 한경우는 없음. 기계산업 관련 업종 제한이 있는 데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 건물이 낡았으니 산단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함. 	01:21:51~ 01:27:47
16. 과거의 인천교	
- 동구 구민운동장이 생기기 전에는 바닷물이 거기까지 들어왔음 비가 많이 오고 백중사리가 겹치면 공장이 침수된 적이 있음 그 뒤로 산업유통상가, 국민운동장이 생겼음.	01:27:48~ 01:29:35
17. 미래비전	
 우리가 하는 분야에서는 1등을 하는 회사 우리보다 앞서 있는 회사들을 정확히 알아야 목표가 설정되고, 따라잡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신경을 쓰고 있음. 	01:29:36~ 01:32:20
18. 기계 설명과 설치 장소	
 원통 형상으로 생긴 단순한 형태의 베어링을 만듬. 오탁수를 처리하는 수처리 장치가 있음. 비가 오면 공해 물질들이 쓸려내려갈 때 2단, 3단으로 걸러서 방류가 되게끔 하는 장치인 '비점 오염 저감시설' 장치도 개발해서 사업을 하고 있음. 	01:32:21~ 01:38:02
19. 마지막 인사	01:38:03~
- 인터뷰 종료	01:53:13